

멕시코-EU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

손은아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·중남미팀 연구원 (euna@kiep.go.kr, Tel: 044-414-1323)



차 례

1. 멕시코-EU 무역협정의 체결 배경
2. 현대화된 글로벌 협정(MGA)의 주요 내용
3. 평가 및 시사점

주요 내용

- ▶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통상 불확실성 확대는 멕시코와 EU가 수출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기존 글로벌 협정(GA) 현대화의 최종 서명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함.
 - 멕시코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 통상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수출시장 및 수출대상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, EU는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 원자재 협력 강화를 위해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함.
 - 이에 양측은 2026년 5월 현대화된 글로벌 협정(MGA)과 임시 무역협정(iTA)에 공식 서명함.
- ▶ MGA의 주요 내용은 △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, △ 제조업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제도 현대화, △ 원자재 장 신설, △ 지리적 표시(GI) 보호 강화, △ 투자·정부조달 및 디지털 무역 규범 도입 등으로 요약됨.
 - [농산물] 멕시코는 EU산 농식품에 대해 관세 철폐 중심으로 시장을 개방한 반면, EU는 공동 농업정책(CAP)을 고려하여 관세할당(TRQ)과 단계적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시장을 개방함.
 - [제조업] 최근 생산방식을 반영하여 약 55%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고, 통관·무역 원활화 제도를 현대화함.
 - [원자재] 수출세, 수출독점 및 이중가격제 등에 관한 공통 규범을 마련하고, 핵심광물 가치사슬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.
 - [신규] GI 보호 확대, 투자법원제도(ICS) 도입, 디지털 무역 및 규제 거버넌스 규범을 새롭게 포함함.
- ▶ MGA는 단기적인 교역 확대보다 멕시코의 시장 다변화와 EU의 공급망·경제안보 전략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 - 멕시코는 MGA를 국가개발계획 및 플랜 멕시코(Plan México)와 연계하여 대미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나, 북미 생산 네트워크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대EU 교역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임.
 - EU는 멕시코를 북미 생산 네트워크와 중남미 전략을 연결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하고, 핵심 원자재 및 산업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.
 - 우리 기업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, 향후 EU 기업의 협정 활용 양상과 대멕시코 투자 동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.

1. 멕시코-EU 무역협정의 체결 배경

■ 2026년 5월 22일 멕시코와 EU는 현대화된 글로벌 협정(MGA: Modernised Global Agreement)과 임시 무역협정(iTA: interim Trade Agreement)에 공식 서명함.

- 멕시코와 EU는 2026년 5월 22일 멕시코시티에서 제8차 정상회의를 열고 MGA와 iTA에 공식 서명함.
- MGA는 정치, 협력 및 무역·투자 분야를 포괄하는 기존 글로벌 협정(Global Agreement)을 현대화한 협정이며, iTA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관련 조항의 선제적 적용을 위한 별도의 법적 문서임.¹⁾
 - MGA는 멕시코와 모든 EU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혼합협정인 반면, iTA는 개별 EU 회원국의 비준 없이 EU 차원의 절차로 체결할 수 있어 MGA의 전면 발효 이전에 무역 관련 조항을 우선 적용하기 위해 마련됨.
 - 2026년 7월 8일 유럽의회가 두 협정에 동의함에 따라 iTA는 멕시코와 EU가 각각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 이후 두 번째 달의 첫날 발효할 예정이며, 향후 MGA가 모든 비준절차를 거쳐 전면 발효하면 효력을 상실하고 MGA로 대체될 예정임.²⁾

■ 멕시코와 EU는 글로벌 협정 체결 이후 경제, 정치,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나 기존 협정은 최근 통상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협정의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됨.

- 양측은 1997년 글로벌 협정(GA: Global Agreement)을 체결하여 양자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.
 - GA는 1997년 체결된 이후 상품무역 부문은 2000년, 서비스 부문은 2001년 발효되었음.
- GA는 공산품 중심의 상품무역 자유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투자, 정부조달, 디지털 무역 등 최근 통상협정의 주요 의제를 포함하지 못함.
- 양측은 2016년 글로벌 협정 현대화를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였으며, 2025년 1월 협정문 협상이 최종 타결됨.
 - 2018년 4월에는 무역 분야 전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, 2020년에는 정부조달 분야의 개방 범위와 세무 양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함.

■ 멕시코의 높은 대미 수출 의존도와 EU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맞물리면서 양측은 MGA와 iTA 서명을 추진함.

- 멕시코는 미국 중심의 교역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대외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출시장과 투자 파트너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확대됨.
 - 멕시코는 전체 수출의 약 80% 이상을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어³⁾ 미국의 관세조치 및 자국 산업 보호

1)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(2025), "Proposal for a COUNCIL DECISION on the signing, on behalf of the European Union, of the Interim Agreement on Trade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Mexican States," p. 1-2.

2)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(2026. 7. 8.), "Parliament backs modernised EU-Mexico partnership and easier trade"(검색일: 2026. 7. 13.).

정책 확대에 따른 통상 리스크에 구조적으로 노출되어 있음.

-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이 자동차, 철강, 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관세 압박을 강화하면서 멕시코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으며,⁴⁾ 이러한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시장 및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통상수단으로 MGA와 iTA를 제시함.⁵⁾
- EU 입장에서 멕시코는 북미 시장과 연계된 제조업 생산기반, 핵심 원자재 공급 역량을 지닌 국가라는 점에서 다른 중남미 국가와 구별되는 전략적 가치를 가짐.
 - MGA는 유럽 기업이 멕시코 내수시장뿐 아니라 북미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생산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.⁶⁾
 - 멕시코는 형석, 구리, 아연, 납 등 핵심 원자재를 생산하고 있어 EU의 공급망 다변화와 녹색·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 대상이라는 의미를 가짐.
 - 또한 EU는 기존 협정을 현대화한 칠레, 새로 협정을 체결한 MERCOSUR에 이어 멕시코와 MGA를 체결함으로써 중남미 주요 국가·지역과의 통상협정 체계를 확대하게 됨.

2. 현대화된 글로벌 협정(MGA)의 주요 내용

■ [농산물] MGA는 농산물 시장개방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상이한 개방방식을 적용함.

- 양측은 농산물 시장개방을 확대하면서도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관세 철폐, 관세할당(TRQ: Tariff Rate Quota) 및 단계적 관세 철폐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양허를 설계함.
- 멕시코는 EU산 농식품에 대해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시장을 개방함.
- 반면 EU는 멕시코산 농식품에 대해 TRQ와 단계적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시장을 개방함.
 - 이는 EU가 공동농업정책(CAP: Common Agricultural Policy)에 따라 농업시장 안정과 생산자 보호를 중시하고, 통상협정에서도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TRQ 등을 활용하여 시장개방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과 연결됨.⁷⁾

3)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, <https://ustr.gov/countries-regions/americas/mexico>(검색일: 2026. 7. 6.).

4) Reuters(2026. 5. 22.), "Mexico, EU sign stalled trade deal as they aim to diversify from US," <https://www.reuters.com/world/americas/mexico-eu-sign-stalled-trade-deal-they-aim-diversify-us-2026-05-22/>(검색일: 2026. 7. 6.).

5) Secretaría de Economía(2026), "Resumen Ejecutivo del Acuerdo Global Modernizado (AGM) y del Acuerdo Comercial Interino (ACI) entre México y la Unión Europea," p. 3.

6) Mónica Sánchez(2026), "Mexico and the European Union: more than a trade agreement, a strategic commitment," <https://eulafoundation.org/en/mexico-and-european-union-more-trade-agreement-strategic-commitment>.

7) European Commission, "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t a Glance," https://agriculture.ec.europa.eu/common-agricultural-policy/cap-overview/cap-glance_en(검색일: 2026. 7. 13.).

표 1. EU산 주요 농식품에 대한 멕시코의 시장 개방 확대

품목	기존 관세	MGA 발효 후
가금육	최대 100%	0%
돼지고기	최대 45%	0%
돼지고기 등심	최대 45%	10,000톤 한도 내 0%
블루치즈	최대 45%	0%
기타 치즈	최대 45%	20,000톤 한도 내 0%
신선·가공 치즈	최대 45%	5,000톤 한도 내 0%
요거트	20%	0%
초콜릿·제과류	최대 20%	0%
파스타	최대 20%	0%

자료: European Commission(2026), "Factsheet: EU-Mexico Modernised Global Agreement – An agreement for European farmers."

표 2. 멕시코산 주요 농식품에 대한 EU의 시장 개방 확대

품목	개방 방식	세부 내용
쇠고기	TRQ	- 1년 차 1,000톤 → 5년 차 이후 5,000톤 TRQ - 쿼터 내 관세율 7.5%
돼지고기 햄	무관세 TRQ	- 협정 발효 즉시 연간 10,000톤 무관세 TRQ
가금육	무관세 TRQ	- 1년 차 3,333톤 → 3년 차 이후 6,667톤 무관세 TRQ
꿀	TRQ 후 무관세 전환	- 1~6년 차 연간 35,000톤 무관세 TRQ - 7년 차부터 전면 무관세
참치	TRQ 후 무관세 전환	- 1년 차 12,000톤 → 5년 차 이후 14,000톤 TRQ - 7년 차부터 전면 무관세
오렌지주스	단계적 관세 철폐	- 1년 차 기본관세의 33.3%, 2년 차 16.7% 적용 - 3년 차부터 무관세
아스파라거스	TRQ 후 무관세 전환	- 1~4년 차 1,000톤 TRQ(쿼터 내 관세율 7%) - 5년 차부터 TRQ 종료 및 특혜관세 적용 - 7년 차부터 전면 무관세

자료: Modernised Global Agreement, Appendix A-Tariff Rate Quotas-EU.

■ [제조업] GA에서 대부분의 산업재 관세가 철폐된 가운데, MGA는 원산지 규정 개선과 통관·무역 원활화 제도 현대화를 통해 제조업 공급망 연계를 강화함.

- GA에서 산업재는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던 만큼, MGA는 추가적인 관세 인하보다 비관세장벽 완화에 중점을 둬.
- 양측은 최근 제조업의 생산방식 변화를 반영하고 자동차, 항공우주, 화학 등 전략산업의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약 55%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완화함.⁸⁾
 - 품목별 원산지 판정은 세번변경기준(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)과 생산공정기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허용비율(MaxNOM) 등 복수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업별 생산방식에 맞게 설계함.
 - 자동차 및 엔진 등 일부 전략 제조업은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허용비율을 일정 기간 완화하는 경과규

8) Secretaría de Economía(2026), "Resumen Ejecutivo del Acuerdo Global Modernizado (AGM) y del Acuerdo Comercial Interino (ACI) entre México y la Unión Europea," p. 4.

정을 마련하였는데, 예를 들어 배기량 1.8리터 이상 가솔린 승용차는 협정 발효 후 3년간 비원산지 재료를 공장도가격(EXW)의 55%까지, 이후 3년간은 50%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일반 원산지 규정을 적용함.

- 화학제품은 세번변경기준 외에도 화학반응, 혼합·배합, 정제 등 특정 제조공정을 원산지 인정기준으로 인정하여 산업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함.
- 원산지 증명방식도 기존 기관 발급 중심에서 등록수출자가 송장이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개편함.
 - 멕시코의 승인수출자와 EU의 등록수출자시스템(Registered Exporter System)에 등록된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, 6,000유로 이하의 소액화물은 일반 수출자도 작성할 수 있음.
 - 하나의 원산지신고서를 동일 제품의 복수 선적에 최대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수입 당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 후 1년 이내에 사후 신청과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함.
- 또한 사전 원산지 판정(Advance Ruling), 도착 전 통관심사(pre-arrival processing) 등을 도입하여 통관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특혜관세 활용을 지원함.

■ [원자재] 원자재 분야를 별도 장으로 신설하여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,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함.

- MGA는 원자재 교역에서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양측의 협력 방향을 규정함.
- 각국의 자원 개발 권한과 공공정책 수립 권한을 인정하는 한편, 원자재 교역에서는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원칙을 마련함.
 -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독점(export monopoly)과 국내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이중가격제(dual pricing)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수출세(export duties) 등 교역을 왜곡할 수 있는 조치를 제한함.
-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.
 - 제3국의 시장왜곡 대응, 국제기구 공조, 시장정보 공유, 연구개발, 정책 및 규제 경험 공유, 순환경제 및 재활용 촉진 등 원자재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협력을 추진

■ [지리적 표시제 강화] 기존 협정보다 지리적 표시(GI) 보호를 대폭 확대하여 양측의 지역 특산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

- 양측은 상대국의 GI를 법적으로 보호하고, 원산지가 아닌 제품의 GI 사용을 제한하여 지역 특산품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함.
 -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모방 제품과 GI의 일반명사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적, 사법적 집행체계를 강화함.
 - 기존 상표와 GI 간 충돌 시 선의로 등록·사용된 기존 상표의 권리는 존중하되, GI를 침해하는 신규 상표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.
- MGA는 현재 보호 대상 GI를 부속서에 규정하고, 지식재산 소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신규 GI를 부속서에

추가하거나 보호가 종료된 GI를 삭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.

■ [투자·정부조달] 투자 자유화와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확대하여 양측 기업의 시장 접근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

- MGA는 투자 분야에서 시장접근, 내국민대우, 최혜국대우 원칙을 확대하고 투자기업에 대해 국산부품 사용, 수출의무, 기술이전 등의 의무 부과를 제한하는 등 기존 협정보다 투자 자유화 수준을 강화함.
 - 기업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비차별 원칙을 보장하고, 서비스 분야까지 성과요건 제한을 확대하여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.
 - 투자자가 투자대상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던 기존 투자자-국가 분쟁해결제도(Investor-State Dispute Settlement)를 투자법원제도(Investment Court System)로 대체하여 상설 재판부와 항소절차를 도입하고, 재판관의 독립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함.⁹⁾
-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, 공공기관 및 공공·민간협력(PPP) 사업까지 상호 개방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함.
 - 정부조달 과정에서 내국민대우와 비차별 원칙을 명문화하고, 입찰정보 공개 및 전자조달 활용 등을 통해 조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.

■ [디지털 무역 및 규제 거버넌스 강화] 디지털 무역 규범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디지털 통상환경을 현대화함.

- MGA는 기존 협정에 없었던 디지털 무역(Digital Trade) 장을 신설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상규범을 도입함.
 -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하고, 전자계약 및 전자서명·전자인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.
 - 소비자 보호, 스팸 메시지 규제,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보호 및 사이버보안 협력을 강화하여 신뢰성 있는 디지털 거래 환경을 구축함.
- MGA는 중소기업의 협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 협력체계를 마련함.
 - 협정 활용에 필요한 관세, 원산지규정, 통관, 정부조달 등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담 창구(SME Contact Point)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무역·투자 애로 해소와 협정 활용을 지원함.
-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함.
 - 주요 규제의 제·개정 및 시행 과정에서 규제 영향평가(Regulatory Impact Assessment), 규제 사후평가(Retrospective Evaluation) 및 규제등록부(Regulatory Register)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함.

9) European Commission(2026), "The Qualitative Assessment of the EU-Mexico Modernised Agreement," p. 29.

3. 평가 및 시사점

■ MGA는 기존 무역협정을 단순 개정하는 수준을 넘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과 제도를 도입한 협정으로 평가됨.

- MGA는 비준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iTA를 별도로 체결하여 무역·투자 자유화 조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며, 이는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협정 운영방식을 보여줌.
- 농산물 분야에서는 양측 모두 시장개방을 확대하였으나, 멕시코는 관세 철폐 중심의 개방 방식을 채택하고 EU는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TRQ와 단계적 관세 철폐를 적용하는 차이를 보이며 양측의 농업정책과 시장 민감도를 반영함.
- 또한 GA에 없던 원자재, 디지털 무역, 규제 거버넌스 등을 별도 장으로 도입한 것은 최근 공급망 안정,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통상 의제가 협정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줌.

■ MGA는 멕시코의 대미 의존도를 단기간에 완화하기보다 대외경제 협력 기반과 통상정책 선택지를 확대하는 전략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
- 멕시코 정부는 MGA가 국가개발계획 및 플랜 멕시코(Plan Mexico)와 연계되어 수출시장과 수출대상의 다변화를 지원하는 핵심 통상수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함.¹⁰⁾
 - 다만 기존 GA에서 산업재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었음에도 멕시코의 제조업 생산 및 교역 구조는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원산지 규정 개선과 통관절차 현대화만으로 대EU 교역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.
- 따라서 MGA는 미국 중심의 통상구조를 대체하는 협정이라기보다, EU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멕시코의 정책 운신 폭을 넓히고 대외 취약성을 완화하며 국제 지정경제학적 긴장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보완적 통상수단으로 볼 수 있음.¹¹⁾

■ EU는 MGA를 통해 멕시코를 북미 생산 네트워크와 중남미 지역전략을 연결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.

- 멕시코는 북미 제조업 공급망과 긴밀하게 연계된 생산거점이라는 점에서 EU가 중남미와 북미를 연결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의미를 가지며, MGA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.
- 원자재 장 신설은 멕시코와의 관계를 단순한 상품교역에서 핵심 원자재와 산업공급망 협력으로 확장하려는 EU의 경제안보 전략을 반영함.

10) Secretaría de Economía(2026), "Resumen Ejecutivo del Acuerdo Global Modernizado (AGM) y del Acuerdo Comercial Interino (ACI) entre México y la Unión Europea," p. 2.

11) Mónica Sánchez(2026), "Mexico and the European Union: more than a trade agreement, a strategic commitment," <https://eulacfoundation.org/en/mexico-and-european-union-more-trade-agreement-strategic-commitment>.

- 이는 EU가 공급망 회복력 강화,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교역 다변화를 추진하는 최근 통상정책의 방향과도 부합함.

■ 우리 기업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나, 협정 활용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.

- GA를 통해 대부분의 산업재 관세가 이미 철폐된 만큼, MGA만으로 우리 기업의 제조업 경쟁환경이 단기간에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임.
- 다만 원산지 규정 개선과 통관·무역 원활화 제도 등 새로운 규범이 실제 기업 활동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와 함께, EU 기업의 협정 활용 양상 및 대멕시코 투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.
 - 특히 EU 기업이 완화된 원산지 규정과 투자 자유화 확대를 활용하여 멕시코 내 생산거점을 확대할 경우, 우리 진출기업의 투자 및 생산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부 산업에서는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.
- 이같이 투자 분야의 자유화 확대에 따라 EU 기업의 대멕시코 투자 확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우리 기업의 경쟁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아울러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교역 및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만큼, 기존 FTA를 공급망 안정성과 핵심광물 협력, 디지털 통상규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현대화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. **KIEP**